

연조직 인상 채득



최병갑 연세 크리스마스 치과의원

- 연세대학교치과대학 졸업
- 최병갑 치과의원 원장
- 일본 국내재용 문부성 외국인 장학생
- 일본 동경의과치과대학 치학부 악안면 보철학 대학원박사
- 대림 성모병원 치과부 보철과장
-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보철학교실 및 원주기독병원 치과학 교실 전임강사 및 조교수
- 현) 연세 크리스마스 치과의원 공동 원장

연조직에서 지지를 얻는 총의치의 인상법은 개구 인상법(open mouth impression)과 폐구 인상법(closed mouth impression)으로 나눌 수 있다. 개구 인상법에 대하여는 여러 임상 기법이 사용되는 반면, 폐구 인상법은 점막 조정제(tissue conditioner)를 이용한 동적 인상법(dynamic impression)과 총의치의 재이장법 등이 일부 사용되고 있다.

총의치의 인상은 자연 지대치의 인상과 달리, 부가되는 압력에 의하여 연조직의 형태가 영향을 받으므로 개구 상태에서는 총의치 변연부 연조직의 형태가 폐구위에 비하여 긴장된 상태로 인상이 채득된다. 또한, 인상재가 경화되는 동안 술자의 손에 의하여 위치를 고정하므로 개인 트레이의 위치가 변위되고, 가해지는 압력이 편위되기 쉽다. 개구 인상은 먼저 최종 인상을 채득한 후 교합제를 제작하여 교합 고경을 정하고, 치아 배열을 시행하는 순서로 치료 술식이 진행되므로, 교합제의 제작과 인공치의 배열에 따른 오차가 그대로 총의치의 중합 후에 나타나게 된다.

1958년 동경 치대의 야사끼 마사카다(矢崎正方) 교수에 의하여 고안된 교좌 인상법(咬座印象法, Bite-Seating Impression)은 당시의 기술 수준에서 총의치의 제작과정에서 누적되는 오차를 상하악

총의치의 교합 상태에서 인상을 채득함으로써 보상하는 방법으로 사용되어 왔다. 총의치의 교합면은 강한 교합력이 작용하고, 안정된 교합력은 총의치의 유지와 안정에 중요한 요소이므로, 최대 교두감합위에서 교합력이 균등하게 작용하는 상태로 인상을 채득하는 방법은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개구 인상법이 점막면 즉, 인상면에 초점을 맞춘 인상법이라 하면, 폐구 인상법인 교좌인상법은 교합면을 중심으로 점막면의 인상을 채득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교합면을 중심으로 점막면의 인상을 채득하는 교좌 인상법은 (1)기공과정의 오차를 인상 채득의 단계에서 교합면을 기준으로 수정하므로 개구 인상법에 비하여 중합 후 오차가 현저히 감소하고, (2)폐구 상태에서 인상을 채득하므로 개구 인상법에 비해 보다 생리적이고, (3)인공치 교합면에 균등한 교합력이 부과되어 구강 점막의 압 부담 능력을 증강시킬 수 있으며, (4)시술이 간편하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보다 임상적인 인상 채득법이다

〈참고 문헌〉

1. Yasaki Hideaki ; Stydy from Masakata Yasaki's Complete Denture. 1995, Ishiyaku Publishers.(일본어 판)